



2면 생명공학기업 바이오나아와 협약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4년 4월 8일 월요일 (음 2월 30일) 제3480호

대표전화 (063)288-9700

제22대 총선 전북 사전투표율 38.46%

전국 평균보다 7.18% 높아... 21대 총선대비 3.71%p ↑
순창군이 48.30%로 도내 시군 중 최다... 10일 본투표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사전투표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가운데, 전국 총 사전투표율 31.28%를 보이며 마무리됐다. 이 중 전북은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 보다 7.18%p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지난 6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북 전체 선거인수 151만7,738명 중 58만3,724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사전투표율은 38.46%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지난 21대 총선 전북지역 사전투표율 34.75%보다 3.71%p 더 높은 수치다. 하지만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 보여줬던 48.63%보다는 10.17%p 낮았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첫째 날 17.21%를 기록했는데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첫째 날 21.36%를 기록, 4.15%p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둘째날의 경우 지난 21대 총선에서 기록했던 사전투표율 17.54%를 기록했는데, 이번 22대 총선에서 전북은 둘째날 투표율이 17.10%로 0.44%p 낮았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전북의 각 시군에서 가장 높았던 사전투표율을 보인 시군은 순창군으로 48.30%를 기록했다.

뒤이어 임실 47.97%, 진안 47.68%, 장수 47.37%, 남원 45.73%, 고창 45.49%, 무주 45.38%, 부안 45.14%, 김제 42.24%, 정읍 40.91%, 완주 39.40%, 익산 37.25%, 전주 완산 36.00%, 전주 덕진 35.95%, 군산 33.48% 등 순이다.

한편,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본투표는 오는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취재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 6일 전주 덕진구 송천동 예코데시앙 7블록아파트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큰 인기'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이 도민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5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북자치도가 지난달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2주간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을 접수한 결과 1,000명 모집에 1만4,621명이 접수해 14.6대 1

2주간 모집 결과, 1000명 모집에 1만4621명 접수

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주시는 17.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며 청년들의 참여가 가장 활발했으며,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인 순창군도 5.5대 1에 달했다.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은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전북자치도가 같은 금액인 10만원을 적립해 2년 만기 시 이자를 합쳐 본인 저축액 포함 500만원(원금 400만원+이자)을 수령할 수 있는 자산 형성 사업이다. 전북자치도는 4월 중 가구소득, 가

구원수, 연령, 도 거주기간, 근로기간 등 5개의 심사 항목으로 심사해 오는 5월 7일 최종 선발자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모결과는 도 및 시군,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www.double.jp2030.or.kr)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개별공지도 이월될 예정이다.

최종 선발자는 온·오프라인 금융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을 수료해야만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중앙공모사업 선제 전략 대응 중요"

김관영 도지사, 고물가 대응 민생현장 활동 등도 주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중앙공모 사업선정 관련 전략 대응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지난 5일 간부회의에서 "전략적인 중앙공모 사업 대응이 중요하다"며, "부처의 1년 공모 계획 전체를 리스트업(list up)해서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구별 정기적 전략회의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찾자"고 강조했다. 이어 "1기업-1공무원 전담제가 전 시군에 확대되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우수 시군 인센티브 부여, 지속 컨설팅 등 정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 지사는 지난 2일 정부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발표 관련, "물가가 높아져 민생의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는데 좋은 정책이 잘 알려지지 않아, 농축산물 할인쿠폰 등 정부 할인정책을 통해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공무원은 스스로의 역할을 바탕으로 기획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용역을 발주할 것(최소화), 용역 기간 역시 최대한 단축할 것(슬림화), 용역과제를 주제별로 세분화해서 신속하게 용역결과를 낼 것(타게팅)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간부회의는 17개 공기업·출연기관장이 함께 참여했다. /김재훈 기자

군산 나운동에 우수유출저감시설 구축한다 | 전북자치도, 행안부 공모 선정... 국비 249억 확보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공모'에 군산 나운동 지구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군산시 나운동 일대는 서해와 인접한 저지대로서 주거지와 상업지가 위치한 구도심 지역으로, 집중호우 시 하수관거의 통수능이 부족해 내수지역 배수불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다.

특히 2012년부터 큰 침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최근 우수유출저감시설 구축이 필요한 곳으로 대두됐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집중호우 등으

로 인한 우수의 유출량 증가를 막기 위해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둬 우수를 원활하게 흐르게 하는 시설이다.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일정 시간 지하에 모으다가 비가 그치면 하천으로 방류하는 이 사업은 군산 나운동 일대 상습 침수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3월초 국비 확보를 위해 행안부 우수유출저감시설 공모 사업에 신청했으며 지난 4월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전국에서 8개 사업을 신청했으나 서류심사와 현지 타당성 조사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선정심의회 등을 통해 최종 6개 사업에 군산이 선정됐다.

2028년까지 총 사업비 499억원 투입해 우수저류시설 신설과 우수관로 증설 등을 추진하며, 이중 249억원(국특 50%)을 국비로 지원받아 재정 부담 경감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항구적 침수피해 예방 사업에 조기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운동권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군산 나운동 우수유출저감시설 구

축 사업이 완료되면 최근 예측할 수 없는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지 상가 및 주택가 등의 상습적인 침수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도 국가예산 사업인 풍수해 생활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 소하천 스마트계측 정비 사업 등에 대해서도 행안부와 기재부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국가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정읍 유아숲 체험원

봄 향기 가득한 정읍에서 멋진 날...

내장산 우화정

정읍천 벚꽃

정읍시 JEONGEUP-SI